



자연스럽게 흐르는 샘물이 최고

혜우 스님 전국 산사 '맛있는 찻물' 가려 '찾물기행' 여어

차(茶)의 계절이 돌아왔다. 4월에도 눈이 내리는 애꿎은 날씨 속에서도 남녘의 차밭에는 여러 찻잎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차문화 중흥기'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차문화가 대중화된 덕분에 편의점에서건 백화점에서건 녹차를 구입해 마시는 일이 그야말로 '다반사(茶飯事)'가 되었다. 하지만 차를 마시는데 있어 차만큼이나 중요한 '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직 드문 형편이다. 전남 구례에서

전통 뒤음차 제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혜우 스님은 전국의 산사를 찾아 '맛있는 찻물'을 가려 뽑아 최근 <찾물기행>(조룡, 1만5천원)이란 책으로 엮어 냈다. 스님은 "차를 즐겨 마시는 사람도 의외로 물 때문에 차 맛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전국에서 물맛이 좋다고 손꼽히는 곳을 찾아, 실제 차를 우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고 말한다. 수심이 깊은 물을 직접 펌과 무게와 부피를 측정하고, 직

접 끓여 차를 우려마시면서 그 맛을 감별했다. 또 50여 곳에 서 떠온 물에 대해 수질 검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물속에 용해된 나트륨과 마그네슘, 칼슘 등 소량의 미네랄 성분의 함량에 따라 물맛이 달라지고, 이것이 곧 차의 맛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수심 곳 직접 감별 50여 곳 성분 의뢰 샘물, 산골짜기 물, 지하수 順 맛 좋아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은 "차 마시기에는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샘물이 낫고, 그 다음이 오염되지 않는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 지하수는 그 다음"이라는 것이다. 같은 물이라도 바로 받은 물보다는 며칠 두었던 물이 차의 맛과 향을 드러내는데 더 좋다고 스님은 충고한다. 그렇다면 물맛 좋기로 소문난 사찰의 찻물은 어떤 맛일까? 혜우 스님의 안내로 맛있는 찻물을 찾아야 한다.

■ 찻물로 뛰어난 고성 옥천사 약수

고성 옥천사는 '옥천(玉泉)'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좋은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있다. 1648년 샘 위에 옥천각이라는 누각을 세워 샘을 보호하고 있으며, 1987년 7월에는 '한국의 명수'로 선정됐을 정도로 물맛이 뛰어나다. 흔히 이름난 약수에는 철과 유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차맛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이곳 물은 차를 우려 마시기에도 적합하다.

■ 맑게 스며드는 진불암 샘물

대흥사는 숲이 깊고 흙이 많은 옥산이어서 물이 좋은 샘을 많이 품고 있다. 산내 암자 곳곳의 샘물이 좋는데, 그 중에서도 대흥사 산내암자인 진불암의 샘물이 손에 꼽힌다. 진불암 샘에는 비바람을 막을 문까지 해달아 놓았는데, 물맛이 맑고 입안에 스며드는 것처럼 부드럽다.

■ 깊고 부드러운 봉선사 샘물

남양주 운악산 봉선사에는 샘이 들어 있다. 하나는 대웅전 뒤 숲으로 난 오솔길을 따라 가면 만날 수 있는 샘이 있다. 춘원 이광수가 봉선사 다경향실에 머물 때 이 곳의 물을 길어다 차를 마셨다고 한다. 또 하나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요사채 뒤에 있다. 이 물을 종무소 앞 샘으로 흐르게 해 이웃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마실 수 있게 했다. 물맛이 깊고 부드러운 차를 우렸을 때도 차맛의 깊이를 더하고 향이 그윽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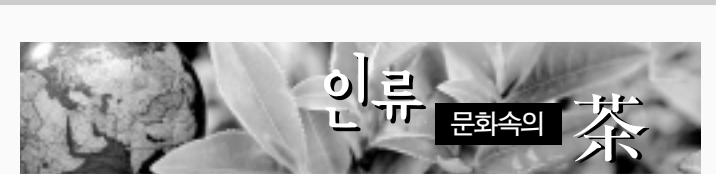
■ 뒷맛이 깨끗한 지리산 샘물

지리산의 샘들은 장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수준급의 물을 품고 있다. 쌍계사 팔상전 오른쪽에 위치한 두 샘은 '음샘'과 '양샘'으로 이름 붙여져 있다. 각각의 샘물의 맛이 미묘하게 차이나고, 성분 또한 차이를 보인다. 칠불사 샘물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물맛이 청량하고 탄력성이 있는데, 차를 우려 마셔보면 나무랄 데 없이 뒷맛이 깨끗하고 맑다.

■ 맛 향이 오래남는 보림사 샘물

보림사 샘은 절의 뒤쪽이 아닌 마당 한 가운데서 솟고 있다. 우물처럼 깊은 것이 아니라 자갈이 깔린 바닥에서 샘이 흐르고 있다.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위해 주차장 한 쪽에는 따로 약수터를 준비해 두었다. 물은 다른 샘에 비해 무거우나 물맛은 입안에서 가볍고 유순하다. 차를 우려 마셨을 때도 찻물이 부드럽고 맛과 향이 오래 남았다. 한국자연보호협회가 '한국의 명수'로 지정하기도 한 곳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33. 일본의 차 전파

시대마다 나라마다 역동적으로 변화된 다양한 모습의 음식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다.

일본은 위치와 지형적인 요인으로 북방과 남방의 양계문화가 들어와 복잡한 형식 문화를 띠고 있다. 또한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많이 반영하고 있으며 차 문화 역시 이러한 맥락을 같이한다.

일본의 다도(茶道)문화는 일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화이다. 일반적으로 차가 일본에 유입된 시기는 8세기 초로, 당나라에 사절단으로 건너갔던 유학생들에 의해 전파됐다. 당에 갔던 승려들은 장안(長安)에서

들만 마실 수 있었고 민간에까지 보급되지 못 하였다. 이런 초기의 차 마시는 풍조는 건당사 폐지로 인하여 중국과의 왕래가 끊어지면서 정착되지 못하고 침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다시 차 문화가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시기는 가마쿠라 시대(1192-1333) 이후다. 남송(南宋)때 에이사이(榮西) 선사가 선종과 함께 차를 유입하면서 일본에 차를 마시는 풍조가 퍼져나갔다. 특히 에이사이 선사는 <꼭다양생기(喫茶養生記, 1211)>라는 책을 저술한다. 차의 효능에서 역사까지 자세히 기술한 이 책은 이후에 차를 마시는 풍습이 유행하면서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 에이사이 선사는 14세에 출가하여 젊은 나이인 21살에 중국유학에 뜻을 두고 남송 때 절강에 가게 된다. 그

에이사이 선사가 선종과 함께 茶 유입

'꼭다양생기' 저술하며 음다 풍습 정착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귀국할 때 많은 생활 방식과 차 씨, 차 심는 기술 등도 가지고 들어온 차의 개척자이다. 하지만 이때는 차를 마시는 풍



에이사이 선사목상(木像).

는 강남의 명산대찰을 유람하면서 선종 사찰에서 지내게 되어 선가에서 차를 마시는 풍습에 대하여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각 차 산토가 일반인에게까지 성행하지 않았고 귀족이나 승려들 사이에서만 유행하였다.

헤이안 시대(794-1192)는 일본이 당나라를 모델로 국가 체제를 수립하는 시기이다. 귀족의 모든 생활양식이 당나라 풍으로 변모하여 생활에 이용됐다. 음식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먹기 시작했다. 지식인과 유학생들은 당나라에 드나들면서 많은 문물과 불교 경전, 기타의 생활 용품을 가지고 들어왔다. 승려들의 왕래로 인하여 동등성 식품보다는 식물성 식품을 주로 먹게 되는 등 식생활에 변화를 가져왔다. 음차(飲茶) 풍속도 승려들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며 마시는 방법은 중국 당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차를 끓여 생강과 양념을 넣어 먹었다. 차의 양이 제한적이어서 주로 귀족과 일부 승려

이처럼 중국에서 24년을 보낸 에이사이 선사는 일본에 돌아와 자신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 차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책으로 기술하여 차의 보급에 노력했다. 무엇보다도 승려인 그는 선종다도(茶道)의 이치 를 깨달았다.

이처럼 일본의 차는 초기에 승려들의 영향으로 선종에 밀바람을 이르게 됐고 계율 혹은 수행의 식량이 되었다. 남북조 시대에 이르면서 승려와 귀족들 사이에 차의 맛을 감별하는 모임이 유행하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무사귀족 사회에서 호화로운 사교 놀이와 예능으로 발전하게 된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가볼만한 전국 차 행사>

행사명	장소	날짜	연락처
제2회 세계선차문화교류대회	대안 불광산사	4월 20-23일	02-747-8076
다례발표 Tea Sonata	성신여대 수정관 4층 수정홀	4월 27일 오후 4시	02-920-7511
직지사 차명상 템플스테이	직지사 설법전	4월 28-29일	054-436-6084
문경 한국전통차사발축제	문경새재도자기전시관 일원	4월 28일-5월 6일	054-550-6383
제33회 보성다향제	보성차밭, 체육공원 일원	5월 4-7일	061-850-5223
김해 가야문화축제	김해시	5월 15-16일	055-330-3114
제12회 하동 아생차문화축제	하동군	5월 17-20일	065-880-2375
제1회 대구국제차문화축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5월 25-27일	053-788-2516
제18회 전국차인큰잔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5월 27일	02-701-0475
차민들기 체험관광 버스투어	보성군 차밭 일대	5월-7월 매주 월-토요일	061-850-5774

사진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법당 개원 및 점안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꽃들이 만발한 봄에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큰스님을 모시고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법당 개원법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앞으로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에 따라 많은 환우님들의 병환을 치유하고 심신의 고통을 소멸해줄 커다란 도량이 될 것입니다. 원만하게 불사를 마칠 수 있게 동참 후원해주신 원내의 불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하나, 외람되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법당 개원식에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7년 4월 24일(화) 오후 7시

장소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 직원식당(지하 2층)

문의전화 지도법사 지현 011-305-6699
총 무 송상희 011-9204-1349
<http://guro.kumc.or.kr/>

고려대학교의료원 불자회 회장 대휴, 지도법사 지현 합장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게 됩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지의 근거리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10년을 짧게 사는 법!

전통침술 비법전수!

국내 최고의 침술비법을 3개월 안에 마스터!!
당신의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강좌명** : 평생건강요법 기초전문가 과정 (3개월)
- **내 용** : 생활건강 침(전통침술) 경락 및 경혈 피부미용 침 다이어트 침 카이로프랙틱(교정)
- **개 강** : 2007. 5. 1 (화)요일
※의료개방에 앞서 미래를 준비 하세요.

본 강좌에 앞서 무료 특별강의를 실시합니다.

- **일 정** : 2007. 4. 27 (금)요일 오후 2 시
- **장 소** : 서울 용산구 청파동 숙명여대 정문 옆 영화빌딩 3층
- **문 의** : 010-9263-7030

전통침구복지학회

코리아엘스케어아카데미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2가 영화빌딩303호 (숙대 정문 옆 건물)